“올해도 시민 소장 유물 구매합니다”

정읍시립박물관 구입 공고
선사시대~근현대 기록물 등
상설전시실 개편 앞 서화 중점 구입

정읍시립박물관이 지난해 공개 구입한 몽연 김진민의 글씨 10폭 병풍.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시민들의 소장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시립박물관은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정읍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민들의 소장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읍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로써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난해 공개 구입을 통해 몽연 김진민, 창암 이삼만, 토림 김종현 등 정읍 역사 인물의 글과 그림을 비롯해 보천교 관련 자료, 태인방각본 등의 유물을 다수 확보했다.

올해는 정읍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을 앞두고 정읍과 관련된 시·글·그림 등 서화(書畵)류를 중점적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암 이삼만과 동초 김석곤, 몽연 김진민, 석지 채용신 등 정읍 출신이거나 정읍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의 작품이다. 이외에도 정읍을 주제로 한 그림이나 글이 남겨진 서화류도 해당된다.

단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치 않은 자료는 매매를 신청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내달 7~9일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립박물관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련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내년 예산 첫 1조원 돌파하나

시, 1조 4억원 규모 편성…시의회 다음달 16일 의결

남원시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남원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9477억원, 특별회계 527억원 등 올해 대비 3.9% 382억원이 증액된 1조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최경식 시정이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민생경제 살리기와 안전한 남원만들기에 중점을 둔 이번 편성 예산안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도 국·도비로 3200억원을 확보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2023년도 남원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9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5억원 ▲교육 분야 83억원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 933억원 ▲환경 분야 444억원 ▲사회복지 분야 2236억원 ▲보건 분야 158억원 ▲농림 분야 200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8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4억원 ▲과학기술 7억원 ▲기타 분야 1468억원 등이 반영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3년 예산안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본예산으로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만들기를 비롯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의 2023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교육청, 학교교육과정 운영사례 발굴

연구학교 재추진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연구학교 운영을 다시 추진한다. 전북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을 위해서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모 계획’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실험학교다.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과제는 총 6가지며, 지정되는 학교는 15개교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초 1교, 중 1교)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중 1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초 5교)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유초중고 각 1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진로성장지원 중심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 혁신방안(고 1교)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초 2교) 등이다.

희망 학교는 오는 12월13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학교현황, 연구학교 운영 찬성 교원 서명부,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 학교당 1연구 과제만 응모 가능하며, 해당 학교 교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서류 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교에는 12월26일 개별 통보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먹거리 지수 ‘A’
‘우수 지자체’ 선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로 지역 먹거리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을 촉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전국 1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정책과 시민참여, 기획생산 촉진, 안전성 관리,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 등 17개 지표에 대한 서류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단풍미락’의 브랜드화와 상품화를 통해 지역 대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참여 농가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위해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한 점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 먹거리 정책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장학재단, 202명에 1억 1700만원

성적우수, 예·체·기능 등 5개 분야

(재)고창군장학재단이 2022년도 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5개 분야 202명에게 1억17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고창군장학재단은 성적우수·향상을 비롯해 예·체·기능 등 특기, 농어촌활력, 다자녀가정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올해는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대상을 3자녀로 확대하고, 4자녀 가정에 대한 선발 조건을 완화했다. 특기와 농어촌활력 장학생은 자격증 취득자와 수상성적을 살폈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심사해 선발했다.

기탁식에는 고창 청소년수련관 제14기 운영위원회 학생 8명이 참석해 지난 9월 청소년문화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기탁했으며 고창군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0만원을, 문화재 보수업체 영화문화재에서 5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해찬씨가 후배들을 위해 100만원을 기탁해 장학증서 수여식의 의미를 더했다.

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자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김의신 박사 ‘암 발생 원인과 효과적 치료’

다음달 3일 우석대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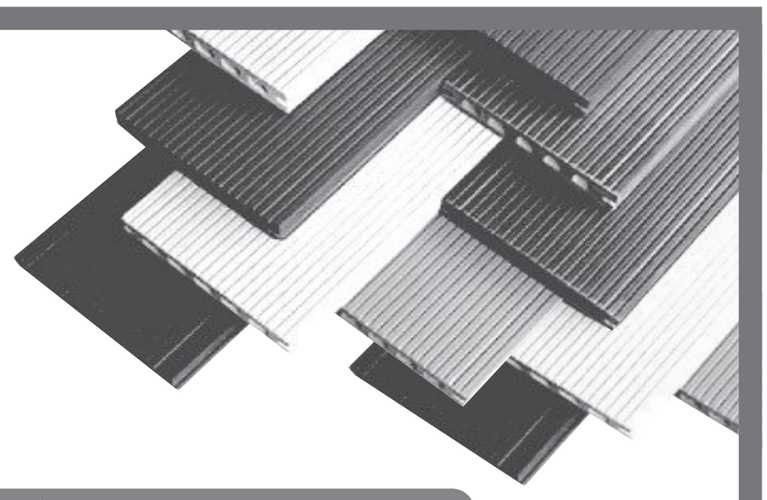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회장 백경신)가 오는 12월 3일 우석대학교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성공적인 암치료’를 주제로 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김의신〈사진〉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

이 학회는 2010년 창간해 한국논문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정식학회로 국내 1800여명의 약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상영양약국학회로 국제학술지인 ‘셀메드’(CELLMED)를 통해 영양요법, 생약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파장요법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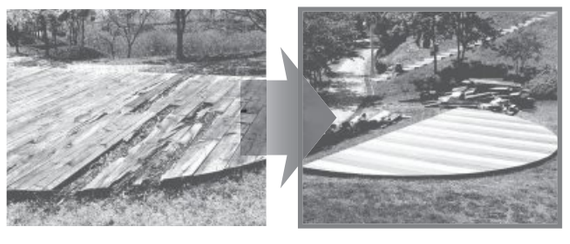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암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의신 박사가 암 발생 원인과 기전 등 과학적인 이해와 함께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암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초청 강연에 나서는 김 박사는 미국 텍사스대 및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종신교수를 지냈으며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의료원 방사선·종양내과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및 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암 분야에서 3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미국 의학교과서 15권을 집필하는 등 양전자단층촬영(PET)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세미나 발표에 이후 학회 학술위원장인 장봉근 박사의 ‘면역항암 천연영양소 AFNC(안토시아닌-후코이단 나노복합체)’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